



위대한 보통사람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가 쉽게 할 수 있는, 보
통이치에 따르는 보통일
을 하지 않는 데서 보통
일은 보통일 아닌 특별
한 일이 되어 버리고, 그
특별한 일을 위해...

鮮于輝

소설가·조선일보 논설고문

위대한 보통사람-이란, 보통
사람이 위대하다는 뜻은 아니다.
났노라는 사람이 많다고 일부러
보통 사람을 내세우는 고까운 생
각에서 보통 사람을 추켜올리려
는 말도 아니다.

속으로는 자기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우월의식을 갖고 있으
면서, 자기는 보통사람이라고 빈
정대는 것은 났노라고 뽐내는 경
우보다 음성적인 자기과시여서
나쁘다.

민중이나 대중(나에게는 불교
용어로 인식되고 있음)이란 말을
쓰는 경우 가끔 그런 그들이 느
껴져서 탈인데, 나는 보통 사
람을 우리가 예로부터 흔히 써온
서민으로 생각하고 싶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서민과도
좀 다르다. 나로서는 보통 사
람을 「남에 못지않는 재능과 꾸준
한 노력으로 살아가되, 나서지도
않고 처지지도 않으며 조용히 성
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규
정하고 싶은 것이다.

자라나는 세대일 경우는 「악착
스럽지도 게으르지도 않으면서,
보통 성적의 온순한 성격을 가진
청소년」일 것이다. 사람에 따라
서는 그렇게 미지근해서야 되겠
느냐고 할는지 모르나, 나는 그런
젊은이들이 좋고, 그런 보통 사
람이 보기 좋은 것이다. 그것이
인간을 보는 나의 미학적 안목
(美學的 眼目)이다.

그러나 안팎을 갖춘 진짜 보통
사람이 되기란 영웅 호걸이 되기
보다 더 힘든 것이라고 나는 생
각한다.

그런데 지난 2~3 년전에 TV
의 기획물을 보다가 그런 진짜
보통 사람을 발견하고 나는 패재

를 불렀었다.

지금 일본 교오도에서 MK택시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당년 56
세(57?)의 俞奉植씨가 바로 그
사람이다.

보유 택시대수 6 백60대로서,
그 프로를 보는 사람들은 어찌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냐, 진짜
난 사람이지 하고 항의할는지 모
른다.

외국인에게 짜다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한국인 교포로서 그만
큼 될 때까지의 창의력 발휘나
의지적인 행동력으로 보아 유봉
식씨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기
에 충분한 것이다. 그런 관점
에서 볼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TV화면에 소개되는 이
사람을 2 시간 동안이나 지켜보
면서 내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보
통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유씨가 몇 대의 택시를 가지고
택시업을 시작하여 6 백60대를
보유하는 MK택시 회사로 키울
때까지 내가 보기에 유씨가 나타
내 보인 남다른 기발한 재간은
한가지도 없는 것이다.

택시업은 손님에 대해 서비스
하는 것이니까 서비스를 잘 해야
겠다. 그러니 손님이 기분 좋도
록 친절히 해야겠다. 그렇다면, 운
전기사의 언동이 부드러워야 하
는 동시에 타고가는 차 안의 시
트가 좋고 셔츠가 깨끗해야겠다.
그러니 차 안팎을 깨끗이 닦아야
겠다. 또 운전기사들이 제 시간
에 나와 잡념없이 일을 하려면,
집안 걱정이 없어야겠다. 집안 걱
정 가운데서 제일 큰 것은 주택
문제니 그것을 해결해줘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원 주택의 단지를 조성하고 사원복지를 위해 애써야겠다. 사장이라고 초심(初心)을 잃으면 안되니 자가용차는 안 가지고 때로 자기 자신이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는 것이 좋겠다.

사람이란 긴장이 이완되기 쉬우니 때때로 자기수양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정신수양과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등등.

그러니까 유씨는 사업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한다는 일들을 끝이 끝대로 그저 충실히 했을 뿐인 것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그저 당연히 해왔다는 것.

유씨는 정직한 보통 사람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어느 대목에서 꺾을 내어 조금씩 생각을 달리했다면, 절대로 오늘과 같은 뚝뚝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을 것이며, 다른 택시업자들과 마찬가지로의 그렇고 그런 택시업자로서 머물렀을 것이다.

유씨가 성공한 것은 오직 보통 사람의 생각을 보통사람으로서 실천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유씨는 보통의미의 보통사람이 아닌 특별한 보통사람, 즉 위대한 보통사람이 된 것이다.

끝으로 씨는 또 한번 보통말로 이 나라가 잘돼야 한다는 애국정신의 핵심을 끄집어 내어 보았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다보니 자기 나라가 잘 돼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 나라가 잘 돼야 교포의 사업도 잘 됩니다.』

-당연한 이치를 경험으로 깨닫고 그것을 끝이끝대로 실천 할때

정말 기가 막히는 결과를 낳는구나- 나의 감명은 좋은 뜻에서 어이 없고 기가 찬 아연실색 이었다.

-이 보통사람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사람이로구나-

유씨는 또 『말이 많으면 안됩니다. 저는 말 안하고 합니다.』라고 잘라 말하며 이치를 내세우거나, 변명을 늘어놓아서는 사업에 백해무익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내가 유씨에게서 느낀 것은 보통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보통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점이였다.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그것은 보통사람이 공통적으로 갖는 초심(初心)의 힘일 것이다.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 그래서 정직하게 산다. 남을 속여서는 안된다. 그래서 속이지 않는다. 어른에게는 예의바라야 한다. 그래서 예의바르다.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나라의 법을 지킨다. 소집을 당하면 암말 않고 군대에 가서 나라를 위해 싸운다.

선거는 공정히 해야 한다. 그래서 선거는 공정히 치른다.

정치는 민주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정치를 민주적으로 하려고 애쓴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한다. 자동차는 차선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자동차는 차선을 지킨다. 민주 시민은 질서를 지켜야 한다. 그러면 질서를 지킨다.

청소년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면 청소년은 담배와 술을 삼간다. 여자는 정숙한 게 좋다. 그러면 여자들은 정숙하도록 애쓴다. 감

기에 아스피린이 좋다면 아스피린을 먹는다. 쥐를 잡아야 한다. 그러면 쥐를 잡는다.

이렇게 써가면 정초(正初)에 하도 쓸게 없으니까 별소리 다하는구나 하고 짜증을 낼 독자가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나라의 현실이 어딘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은 성현(聖賢)의 말씀이 모자라기도 아니며, 국민의 지적수준이 낮아서도 아니며 탁월한 이론이 없어서도, 기막힌 정치가 없어서도 아닐 것이다.

오직 그것은 앞장서서 정치한다는 사람이나 민중에게 호령하는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나 나라를 사랑한다는 국민들이 웬만큼 갖추어 갖추고 있는 있으면서, 단 한가지 인간간의 초심을 잃어서가 아닐까.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보통이치에 따르는 보통일을 하지 않는데서 보통일은 보통일 아닌 특별한 일이 되어버리고, 그 특별한 일을 위해서는 보통 사람이 아닌 특별한 말과 사람이 필요하게 되어 세상일은 갈수록 꼬이고 어려워지며, 보통사람들도 보통마음을 가질 수 없고 개중에는 보통사람이면서 특별한 사람이 되어 보려고 하다가 평상심(平常心)을 잃고 자기도 남을 불행케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보통사람이 보통 생각으로 보통일을 해 낸다는 것은 보통의 일이 아닌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저마다 그것을 해내야 하는 것이다. 진짜 보통사람들이 행복스러운 진짜 보통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